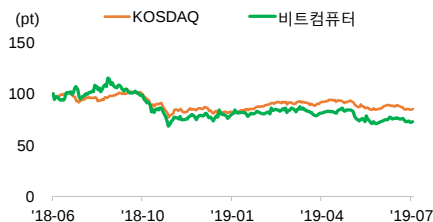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의 주인공

BUY(신규)

목표주가	6,000 원
현재주가	4,625 원
목표수익률	29.7%
Key Data	2019년 7월 5일
산업분류	코스닥 IT SW & SVC
KOSDAQ	694.17
시가총액 (억원)	769
발행주식수 (백만주)	16.6
외국인 지분율 (%)	2.5
52 주 고가 (원)	7,330
저가 (원)	4,350
60 일 일평균거래대금 (십억원)	0.5
주요주주	(%)
조현정 외 3인	26.6
주가상승률 (%)	1M 6M 12M
절대주가	-1.1 -13.6 -23.4
상대주가	0.9 -17.3 -12.4

Relative Performance



LEADING RESEARCH

Analyst 서형석

hsseo@leading.co.kr

+822-2009-7086

1. 목표주가, 6,000원 제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6,000 원' 제시하며 신규 커버리지 개시. 목표가는 12M Fwd EPS 301 원에 Target PER 20 배를 적용하여 산출.

긍정적 판단은 ① 원격진료 서비스, 클라우드 EMR 등 국내 의료정보 서비스 사업의 선도기업에 대한 가치 반영과 ② 클라우드 EMR <클레머> 등 신규 사업 본격화로 실적 가시성 확대, ③ '의료행위'와 '비의료관광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 라인>, 향후 원격진료 사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스마트 헬스케어 환경에 대한 우호적 정부 정책이 동사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2. 실적 전망

'19년 연결기준 예상실적은 매출액 341 억원(YoY+4.1%), 영업이익 48 억원(YoY 흑전) 전망. 주력 사업부인 의료정보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의 시장 성장이 정체 및 지연되고 있고, 클레머 개발비용 부담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이는 ① 기존 중소병원 및 의원급 EMR 교체시기 도래로 클라우드 EMR <클레머>와 기존 EMR 제품의 신규 수주 기대감 확대, ② 원격진료 시스템인 '비트케어 플러스(BITCare Plus)'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도 의료관광과 원격진료 연계사업 활성화, 적극적 해외수주 확보 전략 등으로 실적 기여도 상승 전망.

Valuation Forecast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F	2020F
매출액	억원	348	319	328	341	366
영업이익	억원	35	43	-22	48	53
세전이익	억원	53	48	-6	59	66
순이익	억원	42	36	-2	48	52
지배순이익	억원	42	36	-2	48	52
PER	배	21.90	25.84	-	15.99	14.82
PBR	배	2.28	2.18	2.00	1.66	1.51
EV/EBITDA	배	22.90	18.88	-	12.15	10.99

Source: Leading Research Center, K-IFRS 연결기준

3. 산업 이슈 ① '의료행위' VS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가 전문적 영역에서 보편적 영역으로 확대 중. 헬스케어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도 '19년 5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 라인> 마련의 목적은 건강관리 서비스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만성질환환자, 고령화 등의 급격한 증가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비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 <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은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②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중 1 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 유지, 증진과 질병 사전예방,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대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의 작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함.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 서비스, App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App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등 가능.

비의료기관은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이 가능. 대표적 사례는 ①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 ② 건강검증 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 수집 행위 등으로 객관적 정보 제공과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 영양, 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조언도 가능.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는 질환 관리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질환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

Exhibit 1.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식



Source: 보건복지부,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2.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행위구분	행위예시	제공자	제공기관
건강정보의 확인 점검	건강검진결과 단순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한 자료 수집	제한없음	제한없음
	웨어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 지표의 측정 및 모니터링(체성분, 걸음수, 수면 패턴 등)	제한없음	제한없음
	섭취식품의 기록 및 영양소 분석 안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 지표 수치의 측정(심전도, 혈압, 혈당 등)	제한없음	제한없음

Source: 보건복지부,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3. 산업 이슈 ②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제도. 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② 환자관리, ③ 교육/상담, ④ 점검 및 평가 순으로 진행. 특히 2 단계 '환자관리'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약물복용, 합병증 발생 유무, 생활습관개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 질환 관리 및 진료예약관리 서비스를 제공.

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향후 <원격진료> 사업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 특히 고령화 및 만성질환환자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환자관리가 병원 내방진료에서 벗어나 원격진료가 보편적 관리 서비스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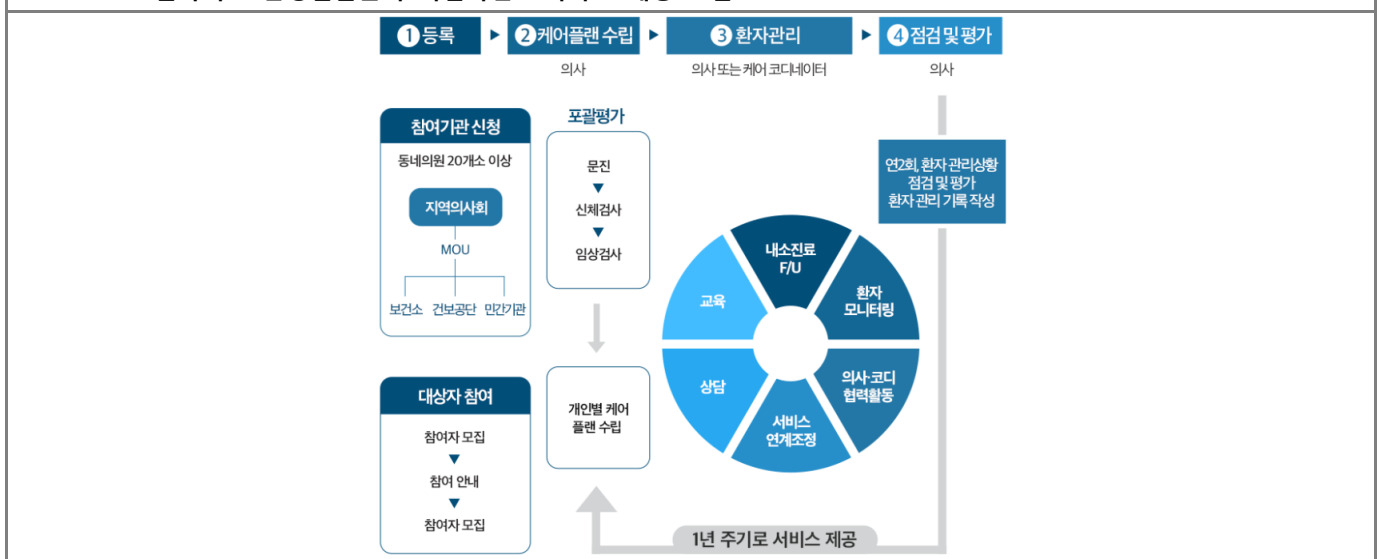
사업기간은 '19년 1월 14일부터 1년간 진행. 사업 대상기관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이며, 대상환자는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대상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1차 서비스를 시작으로 5월 31일 기준 75개 시군구 1,936개 의원에서 의사 2,619명, 케어 코디네이터 277명이 참여. 환자는 115,006명이 등록 관리. 1주일에 3,000명~4,000명의 환자가 등록. 참여 의원 수는 1월 1차에 870개 의원, 2차 937개 의원, 3차 771개에서 **예정에 없던 4차 공모까지 진행.**

의료보험 가입자는 시범사업 진료비 총액의 10%를 본인 부담.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을 연간 최대 22,980원만 부담. 점검 및 평가 2회, 1대 1 교육/상담 최대 8회 기준.

본 시범사업은 확대 및 개선될 전망. 보건복지부는 ① 의료수가 책정. ② 올해 하반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 질환 확대 검토.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대상이 될 전망. 본사업은 내년 상반기 예상. ③ 의원 당 참여환자 수를 최대 300명으로 제한한 기준도 확대 검토.

Exhibit 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흐름도



Sourc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Leading Research Center

3. 산업 이슈 ③ 국내 의료정보 S/W 발전 과정

과거 병/의원의 의료정보는 모두 수기로 작성. 이후 IT의 발달로 의료정보도 전산화의 과정을 거쳐 이제 보편적 서비스로 정립.

초기 의료정보 시스템은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전달시스템)'으로 진료에서 처방과 수납, 원무 등 대부분의 과정을 전산화. 이후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학영상정보시스템)'가 개발.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

현재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으로 OCS가 발전된 형태로 의사의 처방정보 이외에 치료 결과나 경과에 관한 사항 등 환자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개발. OCS와 PACS를 모두 포함하여 역할 수행.

향후 국내 의료정보시스템도 'EHR(Electronic Health Record)'과 'PHR(Personal Health Record)'로 진화될 전망. 'EHR'은 모든 병원의 EMR을 하나로 통합한 데이터 시스템이고, 'PHR'은 HER에 개개인의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건강기록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

다만 국내 의료정보시장은 'EMR' 수준에서 정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정비 미흡, 다양한 기업에서 의료정보솔루션을 제공하고, 각 병/의원 중심의 비표준화 등으로 낮은 단계의 활용도 보임. 특히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로 의료기록(Medical Record) 뿐만 아니라 일상기록(Life Log), 유전자 기록(Genetic Record) 등도 수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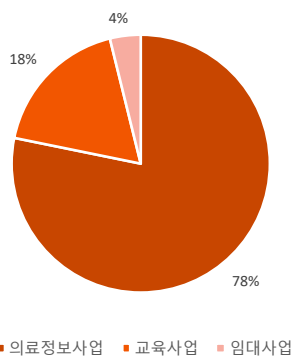
'14년부터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고도화해온 '애플(Apple)'은 스마트 워치 최초로 심전도 측정 센서를 장착한 애플워치4 시리즈를 이미 출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전문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고, 단순 심박수 체크 기능을 뛰어넘어 심전도 측정으로 심장질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 가능. **130개 이상 병원**에서 환자 전자건강기록(EHR) 데이터를 애플 헬스케어 앱 '헬스 레코드(Health Records)'에 연동해 환자가 자신의 개인건강기록을 아이폰에서 접근 가능 기능 추가.

4. 기업개요

동사는 의료정보사업, IT 교육사업, 임대사업 등을 영위. '19년 1분기 기준 사업부별 매출액은 의료정보사업 61억원(매출비중:78%), IT 교육사업 14억원(18%), 임대사업 3억원(4%). 주력 매출원인 의료정보사업은 의료정보시스템과 디지털헬스케어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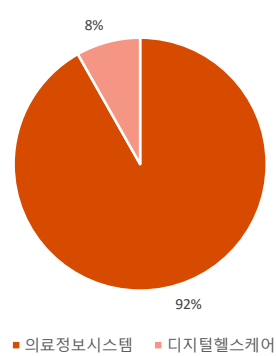
의료정보사업은 병원내의 슬립, 차트, 필름, 종이를 없애는 4Less (Slipless, Chartless, Filmless, Paperless)를 목표로 ICT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병원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을 위한 솔루션 공급. '19년 1분기 매출은 의료정보시스템 57억원(매출비중:92%), 디지털헬스케어 5억원(8%).

Exhibit 4. '19년 1분기 기준, 사업부별 매출 비중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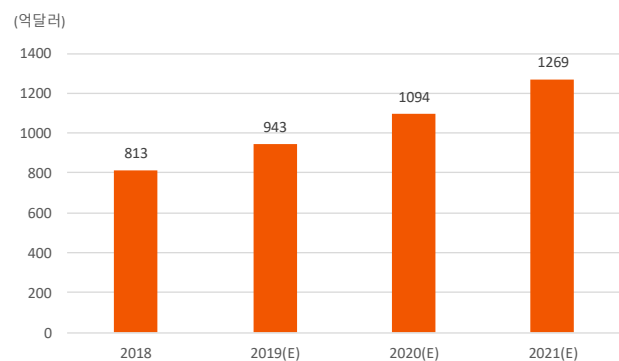
Exhibit 5. '19년 1분기 기준, 의료정보사업부 매출 비중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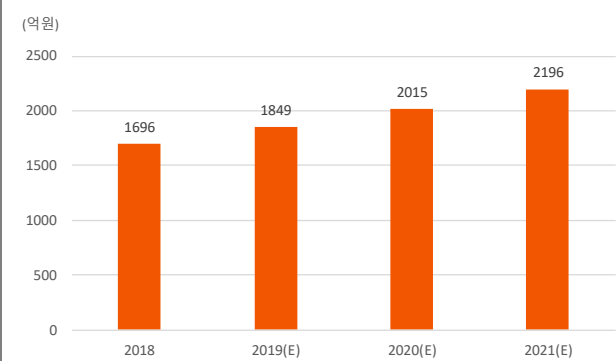
의료정보산업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로 인해 개인건강기록(PHR)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활용한 확장된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의 중요성 증대.

Exhibit 6. 의료정보 사업, 글로벌 시장 규모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7. 의료정보 사업, 국내 시장 규모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18년 기준 전세계 EMR 시장은 280 억달러 규모 추산. 지난 10년간 연평균 8.8% 성장세. 이 중 미국 시장이 40%로 예상. 글로벌 기업별 시장 점유율의 Cerner(M/S: 17%), Epic(8.8%), Allscripts(6.1%) 순이며, 국가별 규제나 시장 구조가 상이하여 아직까지 20% 이상의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함. 미국시장은 EMR의 양대산맥인 Epic Systems와 Cerner가 전체 시장의 50%를 점유. 그 밖에 Meditech(17%), CPSI(10.3%), Allscripts(7.2%) 순으로 시장 형성.

국내 시장은 '17년 1,549억원 규모에서 '19년 약 1,849억원으로 지속 성장 전망.

병원 규모에 따른 제품 라인업은 ① 종합병원 및 병원급은 30년 이상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bitnixHIS>, ② 중소형병원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의 EMR '클레머(CLEMR)', ③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비트U차트를 시작으로 BIT Lab(온라인 수탁검사서비스), BIT CRM(고객관계관리프로그램), BIT Cast(환자대기실 디지털 방송시스템), Dr.VIEW(의료영상관리시스템), bitnixChart for Clinic (영상EMR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제품 라인업 보유.

5. 투자포인트 ① EMR도 클라우드 서비스 개화

동사의 의료정보사업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고객처에 따라 병원솔루션, 의원솔루션, 약국솔루션 등으로 구분.

병원솔루션 중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의료정보 서비스 솔루션 <클레머(CLEMR)> 주목. 클레머는 각급 병원의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 서비스를 조합해 맞춤형 솔루션 구축이 가능. OCS(처방전달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ERP(전사적 자원관리) 기능 등을 포함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HIS : Hospital Information System) 역할 수행.

다만 현재 국내 EMR 서비스는 한계점 노출. 상호 호환성(Interoperability) 문제 발생. 의료기관 간 EMR을 상호 공유하고 전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의료 기록이 환자가 아닌 병원 것이라는 인식도 존재.

Exhibit 8. <클레머> 주요 서비스

기본서비스	1. 원무(접수, 수납, 사전심사, 사후심사 등)
	2. 진료(외래/입원/응급 처방 및 간호, 수술/마취 등)
	3. 전자의무기록(EMR, 영상 EMR 등) 작성
	4. 진료 지원(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약제, 물리치료, 영양, 중양 검사 등)
	5. ERP(인사/급여, 회계, 물류, 자산 등)
선택서비스	1. 모바일 기반의 전자동의서
	2. 진료지원(핵의학, 병리, 사회기업, 방사선종양, 감염관리, 의료 질 관리 등)
	3. ERP(구분회계, 수요예측, 원가, 경영통계 등)
부가서비스	1. 모바일 환자 안내 앱 M-도우미
	2. 비트 비즈플레이(법인카드, 폰뱅킹, 가상계좌 등)
	3.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DSS)
	4. 비트케어 플러스
	5. 원격의료 연계
	6. 드러그 인포 플러스(의약품 처방 최적화 서비스)
	7. 메디전트 프로(청구자동심사)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동사는 <클레머>를 통해 국내의 EMR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진행. 가상 저장 공간을 빌려 진료 기록 데이터를 구축하는 클라우드(가상 저장 공간) 기반 EMR. 다른 산업에는 이미 도입되었으나, 헬스케어 산업은 환자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도입이 지연. 그러나 최근 전자 의무기록을 외부 장소에서도 관리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클라우드 EMR 사업을 진행.

고객인 병원의 입장에서 ① OCS/EMR Server 설치가 필요 없는 구성으로 **H/W 관리비용 최소화**와 ② 높은 초기 비용 없이 월단위 과금 방식으로 **합리적 자금운영 및 유지비용 최소화** 가능하고, ③ 의료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 보안 및 저장, 손실 관리가 원활**하다는 장점 보유.

클레머의 주요 고객층은 국내 2,300 여개의 종합병원/병원급. 기존 EMR 경쟁사 대비 우월적 ICT 기술력을 기반으로 업계 최초 클라우드 의료정보 서비스 시장을 개척. 국내는 '16 년 8 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도 도입 허용.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헬스케어 기관의 83%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국내 의료기관의 도입율도 점증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19 년 하반기 <클레머>를 주목하는 것은 ① 대형 종합병원 구축 사업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됨에 따라 향후 주요 지역 거점병원을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환경 조성. ② 국내 주요 병원들 교체주기 도래. 보수적인 병원들의 관례를 감안시, EMR 솔루션의 교체주기 발생시 검증된 제품의 수요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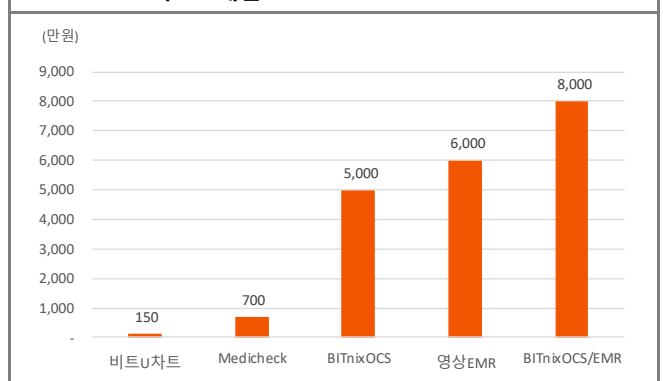
EMR 도입의 특성상, ① 한번 EMR 도입시 장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점, ② 병원의 운영 프로세스와 결합되어, 변경이 어렵다는 점, ③ 데이터 이전(Data Migration)시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수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hibit 9. 주요 제품의 Target Market

상급종합병원 42	bitnixHIS (맞춤형 SI)	부가 솔루션&서비스 약품정보 복약지도 청구심사 ETC
종합병원 304		
병원 1,998	CLEMR [클레머] (패키지SW / 클라우드기반)	
요양병원 1,544	bitnix Silver (SI 맞춤형)	
의원 31,355	BITUChart (패키지SW)	
약국 21,896	Bizpharm (패키지SW)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10. 주요 제품 ASP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5. 투자포인트 ② 원격의료 시장은 열릴 것이다

디지털 헬스사업 부문의 주력 매출원은 원격의료 시스템인 <BITCare Plus>. 현지 의료인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 협진 서비스. 현지 의료인이 원격지 환자에 대해서 원격지 의료인이 측정한 의료영상 및 전자청진기/의료용 확대경/심전계/혈액분석기 등 생체 측정정보를 전달받아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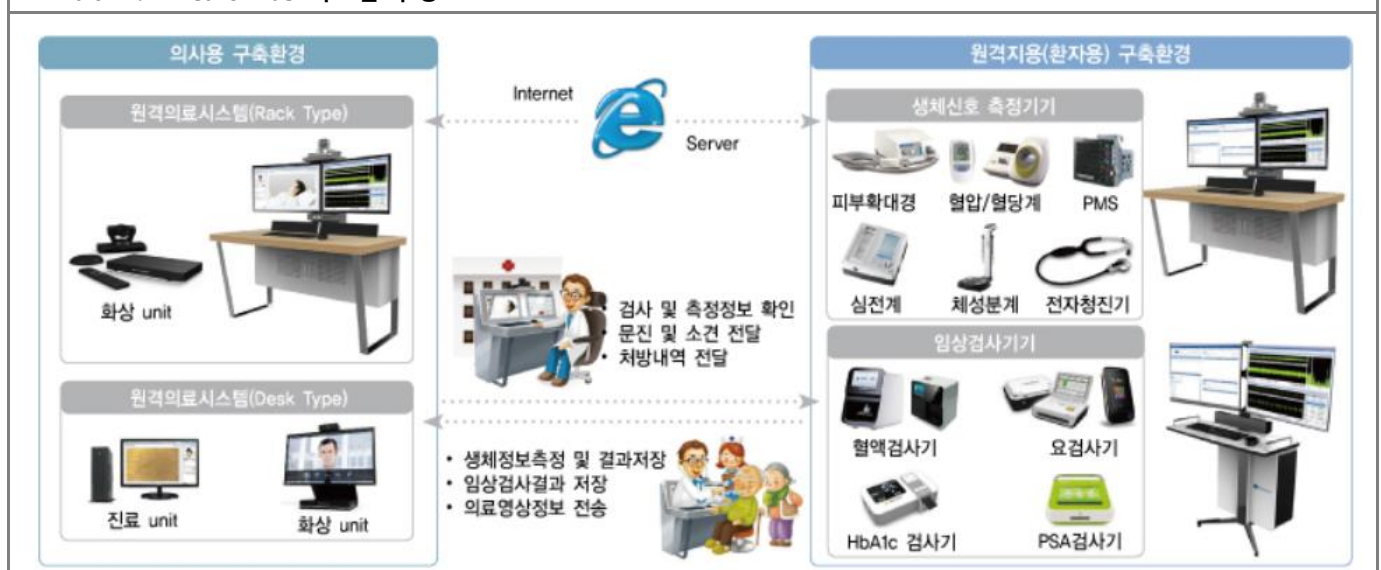
원격의료시스템은 산간, 도서,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환자를 원격지 의사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혈압, 혈당, 맥박, 체지방, 심전도, 전자청진(심음/폐음) 등의 활력징후를 측정. 혈액분석, 요분석, PSA 검사 등의 임상검사장치의 결과를 저장하고, 영상코덱을 이용하여 내시경, X-Ray, CR, CT, MRI 등 영상 정보를 전송. 현지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전(처방지침)을 발행 하는 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비트케어 플러스(BITCare Plus)', 및 독립 키오스크 형태인 '비트케어 스테이션(BITCare Station)', 원격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비트케어(BIT Care)', 스마트 의료지도, 의료기기 게이트웨이 '비트케어 게이트웨이(BITCare Gateway)' 등 라인업 보유. 동사는 '18년 12월말 기준 국내외 900여개 기관에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BITCare Plus>를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실적 개선 기대.

이는 ① 정부의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확대 수혜. 비트 U 차트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런칭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주력. ②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 스탠스. 지난 2월 ICT 분야 첫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원격의료 규제 선정.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5월에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며 제도 정비. ③ After Care 위한 원격진료 시장 확대. 2차, 3차 의료기관의 해외환자에 대한 수술 및 치료 후 현지 의료진과 원격진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의료관광과 원격진료 연계사업 등이 기대되기 때문.

Exhibit 11. BITCare Plus 시스템 구성도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12. 비트 U 차트,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런칭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13. BITCare 서비스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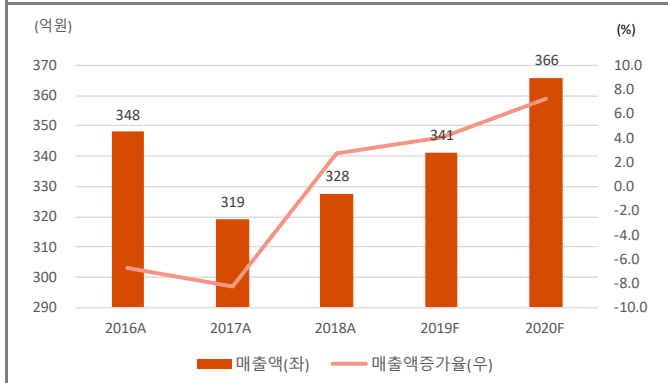
6. 실적전망

‘19년 연결기준 예상실적은 매출액 341억원(YoY+4.1%), 영업이익 48억원(YoY 흑전) 전망. 주력 사업부인 의료정보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의 시장 성장이 정체 및 지연되고 있고, 클레머 개발비용 부담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이는 ① 기존 중소병원 및 의원급 EMR 교체시기 도래로 클라우드 EMR <클레머>와 기존 EMR 제품의 신규 수주 기대감 확대, ② 원격진료 시스템인 '비트케어 플러스(BITCare Plus)'를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도 의료관광과 원격진료 연계사업 활성화, 적극적 해외수주 확보 전략 등으로 실적 기여도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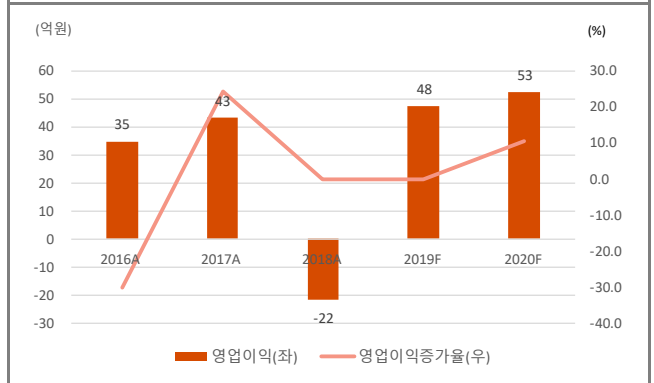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6,000원' 제시하며 신규 커버리지 개시. 목표가는 12M Fwd EPS 301원에 Target PER 20배를 적용하여 산출. 긍정적 판단은 ① 원격진료 서비스, 클라우드 EMR 등 국내 의료정보 서비스 사업의 선도적 기업에 대한 가치 반영과 ② 클라우드 EMR<클레머> 등 신규 사업 본격화로 실적 가시성 확대, ③ 중소병원 EMR 시장 1위의 독점적 사업자의 지배력 등을 반영.

Exhibit 14. 연간 매출액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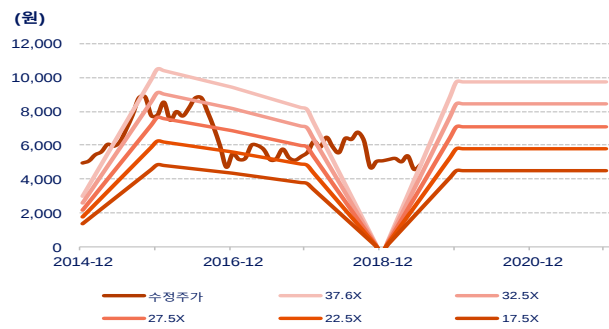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15. 연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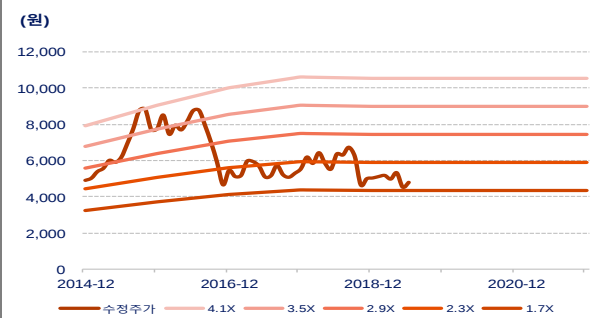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16. PER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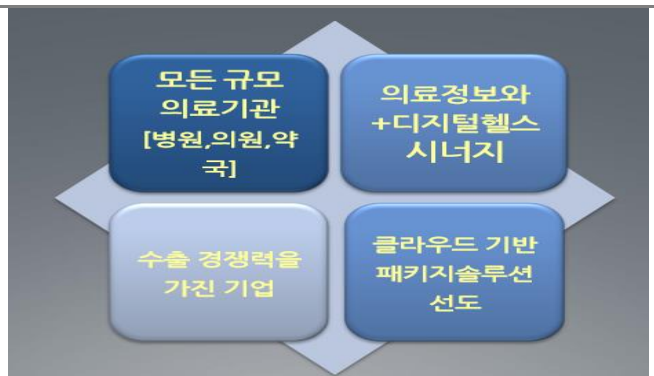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17. PBR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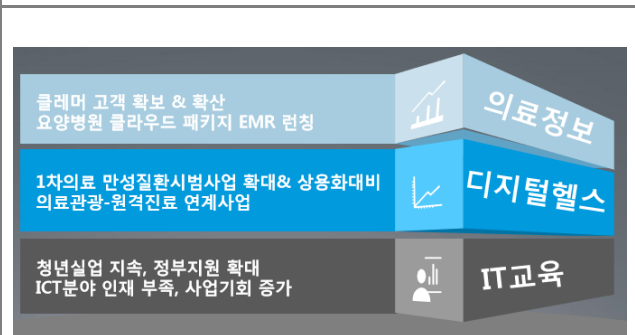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18. 경쟁사 대비 차별화 포인트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Exhibit 19. 사업부문별 주요 전망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자산총계	522	536	561	610	660
유동자산	182	190	196	205	222
현금및현금성자산	52	63	17	40	43
단기금융자산	80	73	96	104	11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2	53	66	42	45
재고자산	0	0	7	15	16
비유동자산	341	346	365	405	438
장기금융자산	43	35	23	23	25
관계기업등투자자산	13	21	28	30	33
유형자산	154	155	153	179	194
무형자산	11	18	18	19	20
부채총계	123	113	140	148	153
유동부채	81	90	116	117	126
단기차입부채	18	18	9	14	15
기타단기금융부채	0	0	0	0	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5	31	53	52	56
비유동부채	42	23	24	31	26
장기차입부채	27	9	0	7	7
기타장기금융부채	9	8	7	7	7
자본총계*	399	424	421	462	508
지배주주지분*	399	424	421	462	508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0

(주1) 회계실체가 별도인 경우, * 항목은 자본총계임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7	45	-7	63	61
당기순이익	42	36	-2	48	52
현금유입(유출)이없는수익(비용)	6	11	20	5	29
자산상각비	5	6	6	16	17
영업자산부채변동	8	-2	-18	15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감소(증가)	7	-8	-20	26	-3
재고자산감소(증가)	0	-0	-7	-8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증가(감소)	-2	-6	17	-5	4
투자활동현금흐름	-26	4	-21	-31	-54
투자활동현금유입액	117	93	102	44	0
유형자산	0	0	0	0	0
무형자산	0	0	0	0	0
투자활동현금유출액	143	90	124	75	54
유형자산	8	5	1	23	31
무형자산	0	0	0	2	2
재무활동현금흐름	-25	-38	-18	-9	-4
재무활동현금유입액	0	0	0	1	2
단기차입부채	0	0	0	1	1
장기차입부채	0	0	0	0	1
재무활동현금유출액	25	26	18	10	6
단기차입부채	25	24	18	4	0
장기차입부채	0	2	0	2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연결범위변동효과	0	0	0	0	0
환율변동효과	0	-0	0	0	0
현금변동	-4	11	-46	23	3
기초현금	56	52	63	17	40
기말현금	52	63	17	40	43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매출액	348	319	328	341	366
매출원가	265	232	292	250	266
매출총이익	83	88	35	91	100
판매비와관리비	48	44	57	44	47
영업이익	35	43	-22	48	53
EBITDA	40	49	-15	63	70
비영업손익	18	4	16	11	14
이자수익	2	2	2	2	2
이자비용	2	1	1	1	1
배당수익	0	0	0	0	0
외환손익	0	-0	0	0	0
관계기업등관련손익	7	8	7	1	2
기타비영업손익	11	-4	7	8	11
세전계속사업이익	53	48	-6	59	66
법인세비용	11	12	-3	11	15
연결실체변동관련손익	0	0	0	0	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2	36	-2	48	52
지배주주순이익*	42	36	-2	48	52
비지배주주순이익	0	0	0	-0	0
기타포괄손익	-2	1	-1	-6	-6
총포괄손익	40	37	-3	42	45

(주1) 회계실체가 별도인 경우, * 항목은 당기순이익임

투자지표

(단위: 원,배,%)	2016A	2017A	2018A	2019F	2020F
주당지표 및 추가배수					
EPS*	250	216	-14	289	312
BPS*	2,401	2,550	2,531	2,781	3,055
CFPS	283	272	-41	380	368
SPS	2,094	1,919	1,971	2,052	2,202
EBITDAPS	239	295	-92	381	421
DPS (보통,현금)	73	0	0	0	0
배당수익률 (보통,현금)	1.3	0.0	0.0	0.0	0.0
배당성향 (보통,현금)	28.9	0.0	0.0	0.0	0.0
PER*	21.9	25.8	-	16.0	14.8
PBR*	2.3	2.2	2.0	1.7	1.5
PCFR	19.3	20.5	-	12.2	12.6
PSR	2.6	2.9	2.6	2.3	2.1
EV/EBITDA	22.9	18.9	-	12.1	11.0
재무비율					
매출액증가율	-6.7	-8.3	2.7	4.1	7.3
영업이익증가율	-30.1	24.4	적전	흑전	10.5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10.2	-13.9	적전	흑전	7.9
매출총이익률	23.9	27.4	10.8	26.8	27.2
영업이익률	10.0	13.6	-6.6	14.0	14.4
EBITDA이익률	11.4	15.4	-4.7	18.6	19.1
지배주주순이익률*	12.0	11.2	-0.7	14.1	14.2
ROA	6.8	8.2	-4.0	8.1	8.3
ROE	11.0	8.7	-0.6	10.9	10.7
ROIC	14.0	18.1	-5.0	22.1	20.9
부채비율	30.9	26.6	33.2	31.9	30.0
차입금비율	11.1	6.3	2.1	4.4	4.4
순차입금비율	-21.5	-24.8	-14.2	-17.5	-17.3

(주1) 회계실체가 별도인 경우, * 항목은 당기순이익 및 자본총계 기준임

Source: Company Data, Leading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지난 6 개월간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의 발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무단복제,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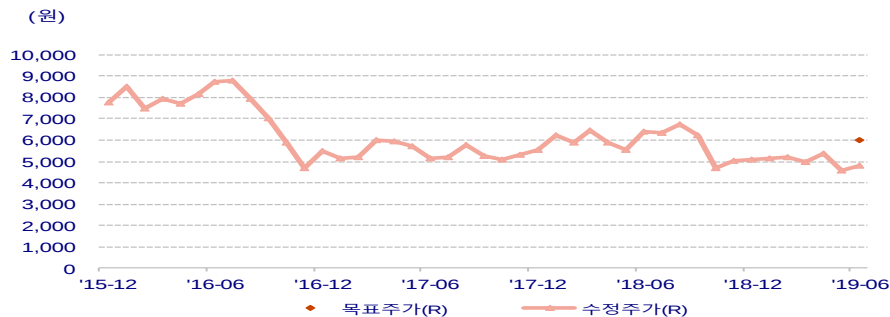
▶ 최근 2 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비트컴퓨터(032850)

일자	2019-7-8
투자의견	BUY(신규)
목표주가	6,000 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
최고(최저)주가대비	-

* 과리율 산정: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 년이며 수정주가를 적용

▶ 최근 2 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현재 주가 대비 절대 수익률 15% 이상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현재 주가 대비 절대 수익률 ±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현재 주가 대비 절대 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 (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회 예상
NEUTRAL (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 5%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 (기준일 : 2019.6.30)

BUY (매수)	100.0%
HOLD (보유/중립)	0.0%
SELL (매도)	0.0%
합계	100.0%